

무재해 5배 달성

고객과 근로자의 안전을 최고의 가치로 이어가다

한화갤러리아 백화점은 36년 동안 우리나라 유통업의 한 축을 담당해 왔으며 오랜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기업이다. 압구정에 위치해 있는 명품관을 본점으로 전국 7개의 점포를 운영하고 있으며, 2006년 서울사회복지대회 유공자 단체부문 서울특별시시장상 수상, 2008년 11월 제품안전의 날 지식경제부 장관상, 제7회 대한민국안전대상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

한화갤러리아 수원점

취재 | 임재근 기자





무재해 5배 달성, 대한민국안전대상 수상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위치하고 있는 한화갤러리아 수원점은 고객 제일주의 실현과 진정한 고객만족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 최상의 품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생필품에서부터 국내 유명브랜드, 해외 명품에 이르기까지 이 지역 패션 1번지로 수원지역의 쇼핑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또한 1997년 12월 유통업계 최초 환경경영시스템인증(ISO 14001) 획득, 2003년 유통업계 최초 안전보건시스템인증(K-OHSMS 18001) 획득, 소방방재청과 경향신문사가 주관하는 제7회 대한민국안전대상 시상식에서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무재해 사업장 실현, 안전한 시설물관리, 임직원들의 높은 안전관리 의식수준 등에 기초한 기업경영의 우수성을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았다. 지난해 10월에는 무재해 5배를 달성하며 유통업계의 모범이 되고 있으며, 고객의 안전과 근로자의 안전을 지켜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자연과 연계한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운영

자연환경안전보건 방침에 있어서 본사의 윤리환경팀과 각 지점은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본사 차원에서 자연환경안전보건 방침 아래 각 지점의 특성에 맞게 환경안전보건방침을 정해 실천해 나가고 있다. 수원점의 환경안전보건방침은 "Safety First, Stop CO₂, Green Galleria"로 안전보건과 환경을 생각하는 그린 백화점을 목표로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위험의 예방과 신속한 개선활동을 펼치고, 임직원들의 위기사태 대응능력을 극대화를 통해 무재해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 폐기물, 물, 재활용화 및 재활용을 통해 자원의 절약과 오염방지 활동을 펼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다. 그밖에 환경, 안전, 보건, 식품위생 등과 관련된 법규보다 강화된 자체 기준을 정하여 준법정신을 일천하고 근로자의 보건 증진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건강한 직장을 만드는 데도 아낌없는 투자를 지속해나가고 있다.

무재해, 무화재 사수를 위한 철저한 점검활동

지하 5층부터 지상 9층까지 18,700여평에 이르는 넓은 매장과 사무실, 식당 등 부대시설에서의 위험과 하루 평균 13,000명의 고객과 직원들이 생활하는데 있어 생각지 못한 위험요인은 늘 사고로 연결될 수 있는 개연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장 순찰을 통한 철저한 점검뿐 아니라 시간, 주간, 월간, 분기별, 연간 주기로 이루어지는 철저한 점검계획을 세워 꼼꼼히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점검활동 중 사고나 화재가 유발할 수 있는 취약 시설과 장소에 유비무환(有備無患)이라는 체크 포인트 60개를 지정하여 점검 담당자가 하루에 3회 이상 이곳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춰 놓은 것이 특징이다. 또한 매월 4~8일(5일 간)을 안전점검 기간으로 정하여 각 층별 관리감독자와 직원들이 정기 점검을 한 후 위험요인을 발굴하여, 즉시 개선하거나 지원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를 통



한화갤러리아백화점 수원점 오일균 점장

즐기는 안전, 자율안전의 시작입니다.

논어에 보면 이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그것을 즐기는 것만 못하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결국 즐기는 것 만한 것이 없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안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하면 한 없이 어렵고 힘들게 되고, 쉽게 생각하면 한 없이 쉬운 것이 바로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칙과 기본을 지키는 것을 첫째로 하고, 이를 현장에서 실천하는 것을 둘째로 한다면 중대한 위험으로 인한 안전사고는 예방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안전에 있어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더 좋은 개선아이디어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이 상하 직급을 떠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더 낫다' 라는 말도 있듯이 어떤 일이든 혼자서 해결해 나가려 하지 말고, 동료와 근로자와 함께 고민하고 개선해 나감으로써 더 쉽고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한화갤러리아 수원점은 이러한 마인드를 바탕으로 고객의 안전과 우리 근로자의 안전을 지켜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해 개선토록 하고 있다.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한 자율안전 정착에 노력

환경안전보건에 있어서도 관리자와 근로자, 최고경영자와 관리자, 최고경영자와 근로자 간 원활한 의사소통의 중요성이 점점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방법으로 각 층별 환경안전전담자를 지정하고 환경안전소모임을 결성하여 점내 위험요소에 대한 파악과 개선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사내 설치된 인트라넷을 활용하여 일반 근로자들이 백화점 내 위험요인에 대한 제안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부탁해요'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인트라넷을 이용하는 '부탁해요' 게시판 운영은 일종의 제안제도라 할 수 있는데 타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안제도와 다른 점은 특정한 양식을 사용하지 않아 직원들이 형식의 구애를 받지 않고 간단히 작성할 수 있어 다양하면서도 많은 양의 제안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렇게 올라온 제안(개선 사항 건의)들은 관계부서에서 확인되는 즉시 개선을 하게 되고, 개선 전·후 사진을 담글로 게재하여 제안자의 확인과 제대로 개선이 되었는지 평가를 받게 된다. 미흡한 점이나 잘못된 점이 있다면 개선 제안자가 다시 답글을 달아 의견을 게재하고 해당 부서는 다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재개선을 하기도 한다. 이렇게 직급에 상관없이 자신이 일하는 곳의 위험을 자유롭게 게재함으로써 관리감독자가 미처 파악 못했던 위험을 개선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제안들은 대부분 고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제안 되는 사례가 많은 만큼 고객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세심한 배려까지 이루어져 일석이조의 효과를 낳고 있다.

고객과 직원 중심의 안전사고 예방활동 전개

한화갤러리아 수원점은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고객과 직원 중심의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백화점 내 운영되고 있는 모니터로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홍보용 동영상을 반영하거나 고객이 집중적으로 물리는 지역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특히 최근 백화점 내 어린이들의 장난으로 인한 경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에스컬레이터와 어린이 및 유아시설에 대한 점검과 감시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직원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금연 프로그램의 운영, 체력정밀측정, 뇌심혈관계질환 검사 등을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분기별로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무재해 6배 달성을 목표로...

2010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한화갤러리아 수원점 임직원들은 올 해 무재해 6배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유통업종에 있어 직원들의 잦은 이직은 환경안전보건관리 활동에 있어 걸림돌이 될 수 있지만 이러한 장애요소를 자체 실시하고 있는 환경안전보건관리 시스템으로 극복하고, 고객의 안전은 물론 직원들의 안전을 지켜나감으로써 또 다시 업계 최고의 안전경영기업으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 철저한 계획과 실천으로 한화갤러리아 수원점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